

초선들 잇단 불출마 선언에 물갈이 폭 관심...중진들 긴장

■민주당 주중 기획단 출범 본격 추진 준비

李대표 주도 인재영입 물밑 접촉 분주
연내 검증위·공천관리위원회 설치
캠프 꾸리고 출판기념회·공직 사퇴
광주·전남 출마 예정자들 빨라진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미뤄온 초선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초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전망이다.

초선기획단이 출범하면 단장 주도로 선거 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출마 예정자들도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출범 행사 등을 열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 과거 총선 사례 등을 볼 때 영입 인사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선기획단 출범 후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한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만들고 1월 중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내년 2~3월에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을 꾸리고 국민공천심사제를 통해 공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지

역 초선시기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당 소속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오는 11월17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동남갑 출마가 예상되는 윤영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12월 8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실 정치인식과 대안을 모색한 칼럼집 '시민시대 시민정치'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광산갑에 출마하는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용빈아 반갑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11월1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이 위원장이 시민공동체와 함께 올곧은 혁신의 흐름에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한 기록이 담겨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어 올해 말 안에 출판기념회가 불뚱을 이룰 전망이다.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동남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4일 사퇴했고, 북구갑에 도전하는 조오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겸 소통기획관도 같은 날 직을 그만뒀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의 뜻을 밝힌 방승룡신원위회 고상석 상임위원도 사의 표명을 밝혔다. 광주 동남갑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와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후보들의 캠프도 빠르게 꾸러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 일부도 최근 시작하거나 조만간 시의회를 떠나 후보들의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초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김성수·이유덕·제윤경·최은열 의원과 지역구 서형수 의원 등 다른 초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지역위원장 위주로 형성된 광주·전남지역 공천 지형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언론, 균형있게 진실 알리는지 성찰 필요”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노고 위로
“법무부 장관 외 개각 예정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경내 녹지원으로 초청, 노고를 위로하고 답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움직여 가는 ‘제4부’라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언론이)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기여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은 권력은 없으나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면서 “독재정권 하에서 선배 언론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통제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1단 기사나 행간으로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려는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소회를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 적어도 일자리 문제가 소극분배 문제는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만 국민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어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개각을 예정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선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관 조정 관련) 입법이 필히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 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입시의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생(학생부종합전형)에 쏠려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꾸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대학에 (정시 반영 비중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학생부의 신뢰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학생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남북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발목 언제까지 잡고 있을거냐”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 움직임에

민주·대안신당 등 정치권 성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등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정책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5·18 진상규명 예산안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안신당은 김정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5·18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연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과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 관련법은 한국당 소속 백승주 의원이 발의했다”면서 “한국당 때문에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다시 예산안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유지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더 이상의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시도가 한국당에서 나온다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광석(광주 서구갑) 의원도 지난 24일 “5·18 방언과 역사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안면불수한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송

의원은 “5·18 펴헤 망언자들을 감싸고 온갖 역사 왜곡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예산을 빌미로 광주시민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국민들에게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위 출범 및 향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20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업비와 관련, 아직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않은 만큼 49억8000만원이 과도하다며 6억9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하나투어

추천여행지

올 가을, 꼭 빠질 태국 THAILAND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신·규·취·항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 무안공항 -

매주 수요일, 토요일 운항

제주항공 11월 18일부터~

#관광, 휴양, 골프 대만족 여행

#5성급 리조트의 향연

동남아 대만

방콕

하나택 AAFP01_1
방콕-파타야 5일, 6일
590,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6일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다낭

savepack AVPF01_0
다낭-호이안 4일
443,000원~
매일운항 3박4일 + 제1날 저녁 있음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대만

하나택 ATPF01_2
[온천]대만-지우판-스펀 4일
769,000원~
주 4회 운항 + 일과별 상미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온천]신상품

하나택 ATPF01_2
[온천]대만-지우판-스펀 4일
769,000원~
주 4회 운항 + 일과별 상미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중국

신규취항

savepack CIPF02_1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440,000원~
수 3박5일 일 4박6일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50 - 선택경비 있음

상해

하나택 CCPF01
상해-장가계 4일, 5일
32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상해/샤먼

하나택 CSPF02_A
상해/하문/고량서 4일, 5일
91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30 - 선택경비 있음

상해/장가계

하나택 CCPF02
상해-장가계 4일, 5일
1,0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얼]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가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주/토/일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외편 항공/비사/비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불편사항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예약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